

스포츠

선수진 축소·감독 부재, 아이스하키부 사실상 '해체수순' 체육부 전 종목 예산 삭감 … 지원비·선수 인원 계속 줄어

예산삭감에 불안한 체육부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국제】 우리학교 체육부 소속 아이스하키부가 체육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경희 체육’의 저변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학교 체육부는 성적부진 등의 사유로 5월에 사임하는 아이스하키부 김영곤 감독을 대신할 후임 감독을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입생 선발 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선수 인원은 총 13명. 아이스하키의 정상적인 팀 인원이 22명임을 고려할 때 선발 인원 감축과 지도자의 부재는 사실상 팀을 해체하는 것에 더 가깝다.

가장 난처한 입장은 단연 학생 선수들이다. 4학년 선수 2명, 3학년 선수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이 저학년인 아이스하키 팀은 당장 진로가 막혀버린 상황이다. 다행히 아이스하키연맹, 경기도체육회 등 외부 지원 논의가 오가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훈련은 중지 상태다. 아이스하키팀 진채운(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는 “우리 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인원이 매우 적어 경기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학교 측이 인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보여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아이스하키부는 1957년 창단 이후 현재까지 우승 25회, 준우승 30회의 성적을 거둔 전통 있는 운동부다.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훨씬했던 아이스하키부는 90년대 말부터 ‘체육특기생은 관련학과 이외의 대학진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정책과 운영지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선수수급과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아이스하키부 문제는 체육부 예산 삭감 등 재정문제로 인해 사실상 ‘해체’라는 철퇴를 맞았다.

아이스하키부의 사례뿐만 아니라, 체육부내의 다른 종목들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90년대 초반 ‘종별선수권대회’에서 5연패의 위엄을 달성하기도 했던 핸드볼 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86학번으로 우리학교에서 핸드볼 선수로 활동했던 핸



“
아이스하키부의 사례뿐만 아니라, 체육부내의 다른 종목들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

드볼 부 김만호 감독은 “상무를 포함해 실업팀이 5팀으로 증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진로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다”면서도 “최근 운영지원비 등이 줄어 실업팀 층에서 훈련용품을 좀 더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 예산 삭감으로 주요 육성 종목에서 빠지게 된 럭비는 장학금과 기숙사 혜택이 줄었다. 럭비부 안덕균 감독은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이제는 체념 상태라고 말한다. 안 감독은 “2년 전 스카웃 인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이 타격이 커다”며 “거기다 훈련 지원금마저 줄어 동·하계 훈련 등 여러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선수는

지원과 성적이 비례한다. 지원이 많으면 유능한 선수를 뽑아 많은 훈련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적은 데다 인원도 줄어 성과도 걱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기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 역시 예산 삭감의 바람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야구부 김도완 감독은 “대학 체육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교 전체가 그렇듯 야구부 역시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때문에 타 대학 야구부에 비해 장비나 용품을 넉넉하게 사지 못해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좋은 배트를 쓰면 비거리가 10m~15m 정도 더 나갈 정도로 장비와

용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체육부 예산 삭감은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2년 성균관대는 이를바 ‘선택과 집중’으로 불리는 체육종목 구조 조정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성균관대 스포츠단’에서 진행한 ‘선택과 집중’ 정책은 성균관대의 5개 단체 구기 종목 중 성적 이 나지 않는 하위 2개 종목에 대해 정리를 실시하고 3개 단체 구기 종목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성적 수치화’에 따른 평가로 결국 핸드볼 부는 해체됐고 성적부진을 겪던 농구부는 존폐위기를 겪기도 했다.

한양대의 운동부 폐지 논란 역시 한동안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한양대 대학 본부 측은 2013년 말 재정난을 이유로 체조·육상·유도부 체육 특기생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가 체육인들과 학부모 등의 거센 항의로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있다. 각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체육부 예산을 축소하면서 대학체육의 저변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예산감축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교 체육부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체육부 김도균 부장은 “학교 사정이 어렵다 보니 올해 13%의 삭감을 포함, 매년 예산 삭감이 진행됐다”며 “각 종목별로 들어오는 외부 지원금이 없으면 힘든 실정”이라며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미 학내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체육부 측은 ‘성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확립해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부진한 성적의 종목들은 조치를 취하되, 적극적으로 외부 지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기닥을 잡고 있다. 김 부장은 “체육부 소속 모든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목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예산 속에서 평가체계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목들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지원을 유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체육부 A 관계자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사회로 나가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경희체육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경희체육을 위해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경희인을 추천해주십시오. ‘웃는 사자’와 함께 활력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교 66주년 기념 2015 경희 ‘웃는 사자상’ 공모 2015 KH Laughing Lion Award

- 접수일시 : 2015년 4월 6일(월)~5월 4일(월)
- 대상 : 경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부문 :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 · 체육
- 시상인원 : 0 명
- 시상내역 :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단,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추천방법 :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E-mail : pr@knu.ac.kr
- 양식 : 경희웃는사자상 추천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 추후공지
- 문의 :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4